아르코미술관의 시원(始原), 1970년대 ‘미술회관’과 한국미술

조수진 미술사학자

조수진은 미술사학자로,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와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의 논문으로 「모든 것은 살아 있다: 김용민의 ‘생태학적’ 개념미술」, 『현대미술사연구』 제57집(2025), 「독서하는 국민과 교양이 된 미술: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100인선집』 출판의 역사적 의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50집(2025) 등이 있다.

1974년 3월 22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1]은 서울 종로구 관훈동[2]에 자리한 건평 2백 평 규모의 건물에 아르코미술관의 전신인 '미술회관'을 열고 31일까지 《개관기념전》을 개최했다.[3] 《개관기념전》에는 한국미술협회 회원들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초대 및 추천 작가, 재야 작가들까지 참여했으며 동양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총 5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었다. '문예진흥원 부설 미술회관'으로도 불렸던 이 미술관은 총 4개 전시실 중 3개를 시중 가격보다 4배 이상 싼 요금으로 연중무휴 대관했는데, 대관 신청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4] 이후 5년이 지난 1979년 5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다시 종로구 동숭동 약 3천 평 부지에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총면적 2백 80평 규모의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신축함으로써 미술회관은 관훈동 시대를 마감했다.[5] 아르코미술관의 역사에서 1970년대는 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 제도의 하나로서 초석을 다지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시기였다.

1 1973년 정부의 문예중흥시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문체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자 반관반민의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이 기관은 역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계획 수립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자체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역사가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세상을 잇다: 50년의 동행, 100년을 약속하는 믿음』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p. 12.

2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4-1.

3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 말인 1972년 8월 14일 대한민국 문예 진흥의 모법(母法)인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을 제정했으며 이후 문예 진흥의 기틀이 된 각종 제도를 정립했다. 이후 1973년 7월부터 공연·전시장과 고적·사적지 등의 입장료에 부가(附加)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10월 19일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계획인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이 공포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미술회관 개관은 정부의 문예중흥 5개년계획 1차 연도 사업의 결과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세상을 잇다: 50년의 동행, 100년을 약속하는 믿음』, p. 173 참조.

4 관훈동 미술회관의 전시실 가운데 1실과 3실은 50평 정도의 크기로 1일 대관료는 1만 원, 2실은 25평 규모로 5천 원이었다. 동숭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미술회관 대관료는 1985년까지 하루 7만 원 선에 그쳐 당시 서울의 공공 전시장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미술회관의 초대 운영위원은 김원(위원장), 김세중(부위원장), 이경성, 이세득, 장우성, 김충현, 박광진, 장상규, 조성길 등이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관 설치 운영키로」, 『조선일보』, 1974년 3월 8일; 「미술회관 대관 신청」, 『동아일보』, 1974년 9월 9일 자; 「서울의 화랑가 어디에 모여있나: 미술 문화 선뵈는 '전시 명소'들」, 『동아일보』, 1985년 8월 28일.

5 「새 '文化(문화)의 거리' 東崇洞(동숭동) '文藝(문예)진흥원'」, 『조선일보』, 1979년 4월 25일.

1970년대 중반, 한국의 미술계에서는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하고 1970년부터 현대화랑을 비롯한 상업화랑이 연이어 문을 열면서 바야흐로 미술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는 특히 한국미술 시장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때이기도 했다. 또 동시대 해외 미술이 작가들을 자극하는 가운데 미술인과 미술 단체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언론사의 주관으로 《루브르미술관 소장 현대프랑스명화전》(1970.3.5-4.5)이나 《프랑스 현대유화전》(1971.8.21-9.20) 등의 대형 해외 미술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곤 했다. 미술회관이 개관했던 1974년에는 약 1백 50여 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열려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 의욕을 입증했다.[6] 한국의 1970년대는 이 같은 미술 인구의 급증과 작품의 양산 추세 못지않게 미술 관련 교양에 대한 대중의 욕구 역시 커져 간 시기였다. 당시 한국인들은 해마다 늘던 국전 관람객 숫자와 미술 분야 도서 출판 붐이 입증하듯 교양으로서의 미술 정보와 전시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뤄진 미술회관의 개관은 미술인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미술회관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전시장과 저렴한 대관료를 통해 정부가 미술계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술회관의 개관은 이에 더해 대관 전시장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부담하고 있던 과중한 역할까지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개관 연도인 1974년에서 동숭동으로 이전하던 1979년까지 미술회관에서는 총 470회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중 서양화 분야가 243회, 동양화 65회, 조각 28회, 공예 16회, 동·서양화 합동 40회, 기타 13회 개최되어 서양화 전시가 절반을 넘었다.[7] 그런데 사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미술 시장 상황은 이와는 달랐다. 일례로 1971년 화랑 전시를 통해 팔린 작품의 70%는 동양화, 나머지 30%가 서양화 장르였으며 서양화 가운데서도 구상 양식은 80%, 추상 양식은 20% 정도만 거래되고 있었다.[8]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대 언론은 "미술회관이 그간 작품의 상품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실험 계열의 작품을 하는 작가들의 연구 발표회장으로

6 「意慾(의욕)·陳痛(진통)의 文化界(문화계)'74 (2) 美術(미술)」, 『경향신문』, 1974년 12월 11일.

7 「美術(미술)의 중심지 東崇洞(동숭동)으로」, 『경향신문』, 1979년 1월 24일.

8 「가을을 노린다 (2) 美術界(미술계)」, 『경향신문』, 1971년 9월 7일.

널리 이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9] 기사에서 사용된 ‘실험’이 당대에는 전위미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서양화 중에서도 상업화랑으로부터 외면받는 작업을 추구한 젊은 작가들이 대관료가 저렴하던 미술회관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미술사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이른바 그룹 운동의 시대로, 작품의 형식과 양식, 추종하는 이데올로기, 출신 학교 등에 따라 형성된 수많은 작가 단체가 상호 경쟁하며 존립한 때였다. 1970년대 중반 개관한 미술회관에서는 1970년대 초반 설립된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 ST(Space & Time 조형미술학회) 등에 뒤이어 등장한 후속 단체의 전시, 혹은 AG나 ST 출신의 기성작가들이 이합집산하며 새로운 창작 방향을 모색한 전시의 개최가 활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술회관이 개관한 1974년 《제1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1974.9.22-28)을 선보인 신생 단체 ‘한국미술청년작가회’였다. 이 단체의 작가들은 자유분방한 실험정신으로 청년만의 감각과 시선을 추구하고자 안면도 꽃지해변과 경기도 광릉숲에서 ‘야외작품 발표를 위한 캠핑’(1975-76)을 갖고 현장에서 자연물을 이용한 설치와 퍼포먼스를 발표했다. 이는 향후 1980년대부터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 같은 단체의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기성 미술의 산실이자 미술 권력의 중심지인 도시에 도전하는 새로운 전위미술인 이른바 ‘자연미술’의 탄생을 촉발한 사건이었다.

이 밖에도 미술회관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탈평면·탈장르적 성격의 실험미술을 추구해 온 작가들이 선보인 단체전 《제1회 무한대전》(1974.12.1-7), 《1977년 서울 11인의 방법전》(1977.10.27-11.2) 등이 꾸준히 열려 이곳이 한국 전위의 주요 활동 무대였음을 입증했다. 이들 단체전을 통해 이어진 실험미술의 흐름은 1997년부터 아르코미술관이 한국미술의 패러다임을 형성한 작가 한 명을 초대해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한 《기획초대전》의 작가(이승택, 박현기, 이건용, 김구림, 성능경, 김차섭, 홍명섭, 임동식 등) 선정으로 이어졌다.

9 「美術(미술)의 중심지 東崇洞(동숭동)으로」, 『경향신문』.

미술회관이 1970년대 내내 다양한 분야의 미술, 나아가 상업화랑이 수용할 수 없는 장르까지도 전시를 통해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조각, 동양화, 서예, 사진 분야 전시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전시는 특히 미술회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한국 미술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미술관 운영위원회 측의 확고한 취지를 반영했다. 미술회관의 개관 두 번째 전시가 한국 판화 발전의 선구자들인 이항성, 최영림 등이 소개된 《미술회관 개관기념 판화초대전》(1974.4.9-21)이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 미술회관의 첫 기획초대전은 《제1회 전국조각가초대전》(1975.10.25-31)이었으며, 이 전시 전후로 '홍익조각회', '한국구상조각회', '한국현대조각회', '서울조각회' 등의 조각가 단체전이 꾸준히 개최되었다. 같은 해 두 번째 기획 전시로 《제2회 전국공예가초대전》(1975.12.6-12)이 열린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당대 언론은 2회에 걸친 조각과 공예 초대전을 초창기 미술회관의 주요 전시로 꼽기도 했다.[10] 동양화와 서예 분야에서도 1970년대 내내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 및 대만, 일본과의 교류전이 열려 이 시기 전통 서화 분야의 대중적 관심도를 반영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한국 미술계의 변화를 미술회관 전시에서 가장 빠르게 반영했던 중요한 사례로 극사실 회화를 들 수 있다. 1978년, 동아일보사와 중앙일보사가 각각 민전인 《동아미술제》와 《중앙미술대전》을 창설하고, '사실과 현실', '시각의 메세지' 등의 청년 작가 단체가 미술회관에서 《사실과 현실-78회화전》(1978.3.2-8), 《전후세대의 사실회화란?》(1978.3.16-22), 《형상'78》(1978.4.27-5.4) 등의 전시를 개최하며 미술 현장에서 새롭게 극사실 회화가 부상했다. 1970년대 내내 구상과 비구상 분리를 비판하며 국전의 제도 개선책을 요구했던 미술인들에게, 당대적 사실의 재현을 추구하는 극사실 회화와 이를 적극 후원한 민전들은 기성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적극 환영받았다.

이처럼 극사실 회화가 당대의 전위적 사실주의 경향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미술회관에서는 여전히 해방 이후 한국의 사실주의 아카데미즘

10 「美術(미술)의 중심지 東崇洞(동숭동)으로」, 『경향신문』.

미술을 선도해 온 '목우회', '신기회', '일요화가회' 등의 단체전이 꾸준히 열렸다. 더불어 주경, 이동훈, 이수억, 변영원, 김영주, 이승조, 하인두 등 국전과 재야를 중심으로 활동한 기성 서양화가들의 개인전도 연이어 개최되었다. 그런 가운데 1980년 미술회관에서는 당대의 현실주의 미술을 표방하며 진보적 형상성을 추구했던 단체 '현실과 발언'의 첫 전시가 개최 예정이었다가 무산되었다. 이는 체제 비판적 내용의 작품은 수용할 수 없는, 정부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미술회관의 정체성이 선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밖에도 미술회관에서는 1950년대 말 국전 참여를 거부하고 1960년대 내내 창작미술협회, 모던아트협회, 신상회, 앙가쥬망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반추상 양식 서양화가들인 황용엽, 홍종명 등의 개인전과 해당 단체들의 전시 《앙가쥬망전》, 《창작미술협회전》, 《구상전》이 활발히 열렸다. 한국의 반추상 양식 서양화가들은 대부분 1930-40년대 일본 유학이나 1950-60년대 프랑스 체류 경험을 통해 추상 언어를 체득했던 작가들이었다. 일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줄곧 재야 혹은 국전 내부의 개혁 세력을 자처하며 사실주의 양식의 아카데미즘 미술에 도전한 당대의 전위이기도 했다.[11] 결과적으로 1970년대 내내 미술회관에서는 사실주의 아카데미즘 회화에서 반추상 양식 구상 회화를 거쳐 1970년대 말부터 새롭게 미술계에 등장한 극사실 회화에 이르는, 한국 구상미술 역사의 주된 흐름이 전시를 통해 형성되었다.

한편, 한국의 1970년대는 전국 각 지역 미술의 균등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꾸준했던 시기였다. 이는 미술회관이 자체 기획초대전을 통해 지역 미술가들의 중앙 화단 진출을 후원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개관 첫해의 《제1회 지방작가초대전》(1974.7.10-19)에 이어 《제2회 지방작가초대전(서양화·판화)》(1975.7.12-18), 《제2회 지방작가초대전(동양화·서예)》(1975.11.8-14)의 개최가 해를 넘겨 이어졌다. 이후 미술회관이 개관 3년 차에 접어들고 대관 전시장으로서 유명세가 커지면서, 1976년부터 1978년까지는 기획초대전이나 특별전 없이 오로지 대관 전시만 줄곧 열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전시들은 주요 다양한 미술 단체의

11 조수진, 「'한국적 구상'으로서의 1960-70년대 반(半)추상 회화」, 『미술사학보』 62호(2024), p. 64.

정기전이었는데, 이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여성 작가들의 단체전이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계에서 여성 작가들의 숫자와 활동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활약은 국내외 미술대학에서의 수학부터 국전과 국내 재야 전시 및 《상파울루 비엔날레》, 《카뉴국제회화제》 같은 국제 전시의 참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표현그룹'(1971), '한국여류화가회'(1973), '한국여류조각가회'(1974) 같은 여성 작가 단체들이 결성되고 《녹미전》, 《숙란전》 등의 여성 동문 전시가 다수 개최되었으며 많은 여성 작가가 각종 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미술회관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상의 여성 작가 단체들의 전시가 지속적으로 열려 여성 미술인 친화적인 전시장의 성격을 확고히 했다. 1970년대 중후반의 미술회관은 이처럼 다양한 대관 전시를 통해 원로와 신진, 전문인과 아마추어, 기성과 전위, 순수와 응용 미술인들이 모여 서로 "대화를 나눈", 애초의 개관 취지대로 모든 미술인의 회합이 이뤄진 장소였다.[12]

이윽고 1979년 1월 24일, 언론은 "인사동의 터주대감으로 행사하던 미술회관이 《한국구상조각전》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라며, 이는 "미술의 중심을 인사동에서 동숭동으로 옮기는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13] 그해 5월이 되자 드디어 신축 미술회관이 동시대 미술 현장의 주된 특징을 총망라한 전시 《신축개관기념전: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 1부 (1979.5.21-6.10), 《신축개관기념전: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 2부 (1979.12.4-12.23)을 선보였다.[14] 이 전시는 특정 주제의 전시 기획을 통해 기존 대관 중심 전시장에서 당대 한국미술의 동향을 선도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려는 미술회관의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미술회관은 1981년 열린 《일본현대미술전: 70년대 일본미술의 동향》(1981.11.6-23)을 필두로

12 「韓國文化(한국문화) 예술 진흥원 美術館(미술관) 설치 운영키로」, 『조선일보』.

13 「美術(미술)의 중심지 東崇洞(동숭동)으로」, 『경향신문』.

14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종합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6년에서 1981년 사이 대학로의 마로니에공원 근처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6),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1979),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1981), 이상 세 곳의 공공 문화기관이 건립되었다. 양은아, 「대학로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경영학 박사학위논문(2017), pp. ⅰ-ⅲ.

이후의 여러 기획 전시에서 아시아, 유럽, 환태평양 지역과의 미술 교류를 적극 추진했는데, 이는 해외 미술계와의 접촉이 확대된 1980년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미술회관의 1970년대 시절인 1974년부터 1979년까지 계수기로 측정한 전시 총관람객 인원은 191만 9천 명에 달했다. 또 관훈동에 자리했던 미술회관 방문자 인원이 늘면서 근처 인사동에 동산방 화랑, 선화랑, 경미화랑, 대신화랑, 동방화랑, 견지화랑, 서울화랑 등의 상업화랑이 빠르게 생겨나 인사동을 '미술의 거리'로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15]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미술회관은 다시 종로 5가에서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동숭동 일대를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 미술회관 주변에 여러 화랑이 생겨나고 자연스레 미술 거리가 형성되었는데, 그 예로 바탕골 예술관, 소나무갤러리, 나우갤러리, 두손갤러리, 동숭갤러리, 토탈갤러리, 예향, 사각갤러리, 갤러리 드 서울, 인공갤러리 등이 있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1985년 이화 사거리에서 당시 낙산가든까지의 7백 미터 구간을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 70평을 '풍류마당'으로 명명해 가무, 민속놀이, 시 낭송회가 가능하게 하면서, 바야흐로 동숭동 일대는 젊음과 낭만의 거리, 예술과 축제의 거리가 되어갔다. 미술회관, 즉 현재의 아르코미술관은 이처럼 개관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의 역사를 추동한 주요 현장이자 한국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선도하는 장소로서 기능했다. 처음부터 미술인과 대중 모두에게 친화적이었던 이 공공 미술관의 역할은,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15 「美術(미술)의 중심지 東崇洞(동숭동)으로」, 『경향신문』.

The Origins of the ARKO Art Center: The Misulhoegwan and Korean Art in the 1970s

Cho Soojin Art Historian

Cho Soojin is an art historian. She is a Visiting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Her recent papers include “Everything is Alive: Kim Yong-min’s ‘Ecological’ Conceptual Art,” Journal of History of Modern Art 57 (2025), and “A Reading Nation and Art as Cultur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 of One Hundred Representativ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50 (2025).

On March 22, 1974,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now Arts Council Korea, or ARKO)[1] opened the Misulhoegwan, predecessor of the ARKO Art Center, in a 660-square-meter building in Gwanhun-dong, Jongno-gu, Seoul,[2] marking the occasion with the *Misulhoegwan Grand Inaugural Exhibition*, held through March 31.[3] This exhibition brought together members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invited and recommended artists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nd artists working outside the established art system and featured works presented across five categories: Eastern painting, Western painting, printmaking, calligraphy, and sculpture. Widely referred to as "the art center affiliated with the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hree of the Misulhoegwan's four galleries were available for rental year-round at rates less than one quarter of those charged by commercial venues, with rental applications reviewed and approved by an operating committee.[4] Five years later, in May 1979,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completed a new building for the

1 Established in 1973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culture and arts promotion policy,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as a quasi-governmental, nonprofit special corporation and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Through its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in formulating the cultural and arts policy plans of successive governments, the institution itself became part of the history of public support for culture and the arts. Arts Council Korea, *Connecting Art and the World: 50 Years Together and a Promise for the Next 100* (2023), 12.

2 154-1 Gwanhun-dong, Jongno-gu, Seoul.

3 On August 14, 1972, toward the end of the Third Republic,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enacted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ct No. 2337), the foundational law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the arts within Korea, and subsequently established various systems that laid the groundwork for cultural and artistic revival. Beginning in July 1973,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was raised through surcharges added to admission fees at performance and exhibition venues, historic sites, and places of cultural heritage. This was followed, on October 19, by the promulgation of the Five-Year Plan for Culture and Arts Promotion (1974–1978), the country's first comprehensive cultural plan. The opening of the Misulhoegwan by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as the result of the first-year project of the government's five-year plan. See Arts Council Korea, *Connecting Art and the World: 50 Years Together and a Promise for the Next 100* (2023), 173.

4 Of the exhibition galleries at the Misulhoegwan in Gwanhun-dong, Galleries 1 and 3 were approximately 165 square meters, with a daily rental fee of KRW 10,000, while Gallery 2 measured approximately half the size and cost KRW 5,000 per day. Even after the Misulhoegwan's relocation to Dongsung-dong, its rental fees remained at around KRW 70,000 per day through 1985, making it the least expensive public exhibition venue in Seoul at the time. The inaugural operating committee consisted of Kim Won (chair), Kim Sechoong (vice chair), Lee Kyungsung, Lee Seduk, Chang Woosoung, Kim Choonghyun, Park Kwangjin, Jang Sanggyu, and Jo Seonggil.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o Establish and Operate a Fine Arts Center," *Chosun Ilbo*, March 8, 1974; "Applications for Misulhoegwan Rental," *Dong-A Ilbo*, September 9, 1974; "Where Are Seoul's Galleries Concentrated? 'Exhibition Hotspots' Showcasing Art and Culture," *Dong-A Ilbo*, August 28, 1985.

Misulhoegwan (the current ARKO Art Center) designed by architect Kim Swoogeun on a roughly 106,750-square-meter site in Dongsung-dong, Jongno-gu, with a total floor area of approximately 10,000 square meters. This marked the end of the Gwanhun-dong era of the Misulhoegwan.[5] In the history of the ARKO Art Center, the 1970s was thus a period of fundamental importance during which the center laid its foundations as one of the country's representative art institutions.

By the mid-1970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rt in Korea was gaining significant momentum.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opened in 1969, and commercial galleries, beginning with Gallery Hyundai, opened one after another from 1970 onward. This was also a period in which the Korean art market grew at the fastest rate in its history. As contemporary art from overseas stimulated Korean artists, the number of artists and artist groups steadily increased. Meanwhile, large-scale exhibitions of international art, including *Estampes et Tapisseries Françaises Contemporaines* (March 5–April 5, 1970) and *Exhibition of French Contemporary Painting* (August 21–September 20, 1971), were held at the MMCA with support from newspaper companies. In 1974, the same year the Misulhoegwan opened, approximately 150 solo and group exhibitions were held, attesting to artists' creative vigor.[6] The 1970s saw not only a rapid increase in the art population and proliferation of artworks but also growing public demand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 demonstrated by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visitors to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nd the boom in art-related publications, the Korean populace was eager for artistic knowledge and exhibitions as part of a broader pursuit of cultural enrich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opening of the Misulhoegwan was welcome news to both artists and the general public.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Misulhoegwan's establishment was to provide indirect governmental support to the art world by offering large-scale exhibition spaces at affordable

5 "The New 'street of Cultur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n Dongsung-dong" *Chosun Ilbo*, April 25, 1979.

6 "The Cultural Scene in '74: Ambition and Growing Pains Part 2, Art," *Kyunghyang Shinmun*, December 11, 1974.

rates. In effect, its opening also helped alleviate the excessive burden that the MMCA had shouldered as a rental venue for exhibitions. From the Misulhoegwan's opening in 1974 until its relocation to Dongsung-dong in 1979, it hosted a total of 470 exhibitions: 243 in Western painting, 65 in Eastern painting, 28 in sculpture, 16 in craft, 40 featuring both Eastern and Western painting, and 13 in other categories. Exhibitions of Western painting thu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7] The situation in the Korean art market, however, had been quite different up to the early 1970s. In 1971, for example, 70 percent of the works sold through gallery exhibitions were Eastern paintings, with the remaining 30 percent belonging to Western painting; within Western painting, approximately 80 percent of the works traded were figurative, while only about 20 percent were abstract.[8] The contemporary press interpreted these figures as evidence that "the Misulhoegwan had been used as a venue for research presentations by artists working in so-called experimental art, whose works had been difficult to commercialize."[9] Given that "experimental" was a term used at the time to describe a characteristic of avant-garde art, this suggests that young Western-style painters pursuing practices neglected by commercial galleries favored the Misulhoegwan due to its inexpensive rental fees.

Indeed, the period from the 1970s through the late 1980s in Korean art history is often characterized as the era of group movements, when numerous art collectives—formed according to artistic forms and styles, ideological affiliations, educational backgrounds, and other factors—competed with one another to establish their positions. At the Misulhoegwan, which opened in the mid-1970s, exhibitions were actively held by groups that emerged in the wake of those established in the early 1970s, such as the Korean Avant Garde Association (AG) and Space & Time (ST). Exhibitions were also held by established artists from AG and ST who regrouped in various combinations as they sought new directions in their work. A representative example was the newly formed Korean Young Artists' Association, which presented *The*

7 "The Center of Art Moves to Dongsung-dong," *Kyunghyang Shinmun*, January 24, 1979.
8 "Looking to Autumn Part 2, the Art World," *Kyunghyang Shinmun*, September 7, 1971.
9 "The Center of Art Moves to Dongsung-dong," *Kyunghyang Shinmun*, January 24, 1979.

First Korean Young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September 22–28, 1974) in the year the Misulhoegwan opened. Seeking a sensibility and perspective specific to their generation through an uninhibited spirit of experimentation, members of the group held "camping for outdoor works presentations" (1975–1976) at Kkotji Beach on Anmyeondo Island and in Gwangneung Forest in Gyeonggi-do, presenting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incorporating the on-site natural life. This catalyzed the emergence of "nature art," a new form of avant-garde practice that challenged the concept of the city as the birthplace of established art and the center of artistic power. From the 1980s onward, this approach was adopted in earnest by groups such as the YATOO Outdoor Field Art Research Association.

The Misulhoegwan also regularly hosted group exhibitions by artists who had pursued experimental practices characterized by departures from the plane and from conventional genres since the late 1960s, including *The First Infinity [Muhandae] Exhibition* (December 1–7, 1974) and *1977, 11 Men's "Way" Exhibition* (October 27–November 2, 1977). These exhibitions demonstrated the center's role as a major venue for Korea's avant-garde. The experimental art currents sustained through such group exhibitions later informed the selection of artists for the ARKO Art Center's invitational exhibition series, first launched in 1997, that invited a single artist per edition whose work had helped shape the paradigms of Korean art and focused intensively on their practice. (Invited artists included Lee Seungtaek, Park Hyunki, Lee Kun-Yong, Kim Kulim, Sung Neungkyung, Kim Tchahsup, Hong Myung-seop, and Rim Dongsik.)

The fact that the Misulhoegwan actively supported a broad range of artistic fields throughout the 1970s—including genres that commercial galleries could not accommodate—is also discernable from its exhibition records in sculpture, Eastern painting, calligraphy, and photography. Many of these exhibitions were independently organized by the center, reflecting the operating committee's firm commitment to fostering balanced development throughout the Korean art world. On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center's second exhibition,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Printmakers* (April 9–21, 1974), which introduced pioneering

figur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intmaking, including Lee Hangsung and Choi Youngrim. The Misulhoegwan's first invitational exhibition was the *1st 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 of Sculptors* (October 25–31, 1975). Around the same time, group exhibitions by sculptors' organizations such as the Hongik Sculpture Association, Korean Figurative Sculpture Association,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Society, and Seoul Sculpture Society were held regularly.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year's second invitational exhibition was the 2nd *Invitational Exhibition of Craft Artists Nationwide* (December 6–12, 1975). Contemporary press coverage identified these two invitational exhibitions devoted to sculpture and craft as among the major exhibitions held at the center during its early years.[10] In the fields of Eastern painting and calligraphy,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including exchange exhibitions with Taiwan and Japan—were also held throughout the 1970s, attesting to the strong public interest in traditional painting and calligraphy during this period.

One particularly relevant example of how the Misulhoegwan quickly mirrored the changes arising within the Korean art world beginning in the mid-1970s was hyperrealist painting. Hyperrealist painting emerged in the art scene in 1978 when the *Dong-A Ilbo*'s Dong-A Art Festival and *JoongAng Ilbo*'s JoongAng Fine Arts Prize, both private-sector art competitions, as well as young artist groups such as Fait et Realite (Fact and Reality) and Message of Sight held exhibitions at the Misulhoegwan—including the *1st Fait et Realite Fine Art Exhibition* (March 2–8, 1978), *What Is the Realistic Painting of the Postwar Generation?* (March 16–22, 1978), and *The Form '78* (April 27–May 4, 1978). For artists who had spent the 1970s criticizing the division between figurative and nonfigurative art and demanding reforms to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hyperrealist painting, which pursued representation of contemporary reality—and the private-sector competitions that actively supported it—were welcomed as alternatives capable of overcoming the shortcomings of the established system.

Even as hyperrealist painting attracted attention as an avant-garde form of realism at the time, the Misulhoegwan continued

10 "The Center of Art Moves to Dongsung-dong," 1979.

to host group exhibitions by artist groups such as Mokwoohoe, Shinki Hoe, and the Sunday Painters' Association, which had led realist academicism in Korea since its liberation. It also presented a succession of solo exhibitions by established Western-style painters who had worked primarily through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nd independent exhibitions, including Chu Kyung, Lee Donghoon, Lee Soo-auck, Byon Yeongwon, Kim Youngjoo, Lee Seungjio, and Ha Indoo. In 1980, the Misulhoegwan was scheduled to host the first exhibition of Reality and Utterance, a group that advocated realist art addressing contemporary social realities while pursuing progressive figuration, but the exhibition was ultimately cancelled. This incident starkly revealed the center's identity a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which could not accommodate works containing criticism of the current regime.

The center also actively hosted solo exhibitions by semi-abstract figurative painters such as Hwang Yongyop and Hong Jongmyoung, who had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beginning in the late 1950s and had spent the 1960s working in groups such as the Creative Art Association, Modern Art Association, Sinsanghoe, and Engagement, as well as exhibitions by those same groups, including *Engagement Exhibition*, *Creative Art Association Exhibition*, and *Exhibition of Gusangjeon*. Most Korean Western-style painters working in a semi-abstract figurative mode had acquired an understanding of abstract language through study in Japan in the 1930s and 1940s or stays in France in the 1950s and 1960s. Some were avant-garde figures of their time, positioning themselves either outside the established system or within reformist circles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from the late 1950s onward, challenging the academicism of realist painting.[11] As a result, the Misulhoegwan's exhibitions traced the principal course of Korean figurative art throughout the 1970s, from realist academic painting and semi-abstract figurative painting to the hyperrealist painting emerging in the art scene of the late 1970s.

The 1970s was also a period during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its efforts to promote a balanced development of art across the country. This is evident in the

11 Cho Soojin, "Semi-abstract Paintings of the 1960s–70s as the 'Korean Figurative,'"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62* (2024): 64.

Misulhoegwan's efforts to support regional artists seeking to enter the central art scene through its own invitational exhibitions. Following the *1st Invitational Exhibition of Regional Artists* (July 10–19, 1974), held in the Misulhoegwan's inaugural year, the *2nd Invitational Exhibition of Regional Artists* (Western Painting and Printmaking) (July 12–18, 1975) and *2nd Invitational Exhibition of Regional Artists* (Eastern Painting and Calligraphy) (November 8–14, 1975) were held the following year. Once the center entered its third year and gained a reputation as a major rental venue for exhibitions, however, a new pattern emerged: from 1976 through 1978, it hosted only exhibitions for which it had been rented, with no invitational or special exhibitions. These exhibitions were primarily regular shows by a wide range of artist collectives, among which group exhibitions by women artists were particularly noteworthy.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70s, the number and activities of women artists in the Korean art world grew dramatically. Their activities ranged from studying at art colleges within Korea and abroad to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independent exhibitions within Korea,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such as the São Paulo Biennial and the International Festival of Painting Cagnes-sur-Mer. A number of organizations of women artists were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including the Pyohyun Group (1971), Korean Woman Fine Arts Association (1973), and Korean Sculptress Association (1974). Numerous exhibitions by clubs of school and university alumnae, such as the *Nokmi Exhibition* and *SookRan Art Exhibition*, were also held, while many women artists received awards in various art competitions. From the late 1970s onward, exhibitions by these artist collectives were held regularly at the Misulhoegwan, firmly establishing the venue as a space receptive to women in the arts. Through this diverse range of rental exhibitions in the mid-to-late 1970s, the center became,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a place within which senior and emerging artists, professionals and amateurs, established and avant-garde artists, and practitioners of fine and applied art came together and engaged in dialogue—a place where artists of all kinds could meet.[12]

12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o Establish and Operate a Fine Arts Center," *Chosun Ilbo*, March 8, 1974.

Then, on January 24, 1979, the press reported that "The Misulhoegwan, which has reigned as a fixture of Insa-dong, will be closing its doors with the *Korean Figurative Sculpture Association Exhibition*," describing the move as "the opening of a new era in which the center of art will shift from Insa-dong to Dongsung-dong."[13] In May of the same year, the newly constructed Misulhoegwan finally presented an exhibition that encompasse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art scene and commemorated the opening of its new building: *Korean Art—Today's Method*, part I (May 21–June 10, 1979)[14] and part II (December 4–23, 1979). This two-part exhibition demonstrated the center's ambition to move beyond its previous role as primarily a venue for rental exhibitions and develop into a major public institution leading the trends of Korean contemporary art through exhibitions curated around specific themes. Beginning with *Japanese Contemporary Art: Trends in Japanese Art in the 1970s* (November 6–23, 1981), the center actively promoted artistic exchange with Asia, Europe, and the Pacific Rim through numerous subsequent exhibitions. This reflected the realities of 1980s Korea, when contact with the international art world was expanding.

From 1974 to 1979, a total of 1.919 million visitors were recorded by the mechanical counters at the Misulhoegwan. As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Gwanhun-dong location increased, commercial galleries rapidly opened in nearby Insa-dong—including Dongsanbang Gallery, Sun Gallery, Gyeongmi Gallery, Daesin Gallery, Dongbang Gallery, Gyeonji Gallery, and Seoul Gallery—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transformation of Insa-dong into an "art street."[15] From the 1980s onward, however, the Misulhoegwan began to develop the area of Dongsung-dong, stretching from Jongno 5-ga to the Hyehwa-dong rotary, into a new cultural district. Several galleries opened around the center during this period, naturally giving rise to another art street. These included Batangol Arts Center, Sonamoo Gallery, Now Gallery, Duson Gallery, Dongsoong Gallery, Total Gallery, Ye Hyang, Gallery Sagak, Gallery de Seoul, and Ingong Gallery. In addition, in 1985,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ignated a 700-meter stretch from Ihwa Intersection to what was then Naksan Garden as a "car-free street" on weekends and turned a 230-square-meter area in fron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nto the Pungnyu Madang (an open area for enjoying refined and artistic leisure) where song and dance, traditional folk games, and poetry recitals could be held. The streets of Dongsung-dong thus gradually came to symbolize youth, romance, art, and festivals. From its opening to the present, the Misulhoegwan—today's ARKO Art Center—has served as a key site in the history of Korean art and as a place within which the Korean public could encounter and enjoy culture and the arts. Its role as a public art institution, accessible to both artis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the outset, will remain unchanged, even into the far distant future.

13 "The Center of Art Moves to Dongsung-dong," 1979.

14 Following Seoul National University's relocation to its Gwanaksan Mountain campus in 1975, three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near Marronnier Park in Daehangno between 1976 and 1981: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now ARKO, 1976), the Misulhoegwan (now ARKO Art Center, 1979), and the Munyehoegwan (now ARKO Arts Theater, 1981). Yang Euna,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aehak-ro as Culture and Arts Space,"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i–iii.

15 "The Center of Art Moves to Dongsung-dong," 1979.